

[38~42] (가)는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반영해 행사를 진행한 후, '학생 1'이 쓴 소감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우리 ○○시 천문 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 우리 동아리가 '조선 시대 천문학'을 주제로 전시 체험 공간을 운영하기로 했잖아. 저번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서 각 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볼게.

학생 2: 우리 조는 조선 시대의 천체 관측 기록에 대해 전시하기로 했잖아. 찾아보니까 영조 때의 혜성 관측 기록이 있었어. 그게 헬리 혜성을 관측한 기록이더라고.

학생 3: 그래? ㉠ 그런데 그 관측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

학생 2: 조선 시대 기록인데도 혜성의 이동 경로, 밝기, 꼬리의 길이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어. 이는 헬리 혜성의 정확한 궤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야.

학생 1: 대단한 기록이네. 전시물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야?

학생 2: ㉡ 혜성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전시물을 만들고 있는데 좀 미미해 보여 걱정이네. 좋은 생각 있어?

학생 1: 영상으로 만들면 생생할 것 같은데 어때?

학생 2: ㉢ 영상은 생동감이 있어서 좋긴 한데, 행사 전까지 제작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학생 3: 역사 신문 형식 어때? 조선 시대 혜성 관측을 당시에 직접 취재한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학생 2: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록을 소개하는 데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해 볼게.

학생 1: 조선 시대 별자리 해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학생 3: 거의 다 됐어. 우리 조는 옛 별자리 28수를 준비하기로 했잖아. 그중에 여름철 별자리만 설명하려고 해. 사람들이 관측 행사 때 볼 수 있는 것을 다루려고.

학생 1: 그래. 그런데 옛 별자리가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별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

학생 3: 화면에 밤하늘 사진을 보여 주고 우리 옛 별자리의 모양이 서양 별자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거야.

학생 1: 그래. 별자리 그리기 체험은 투명 카드에 야광 펜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잖아? 얼마나 준비됐어?

학생 3: 카드에 미리 별의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까지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그릴 수 있겠지?

학생 2: ㉣ 응. 학교 행사 때 지리 동아리도 지역 명소를 표시한 활동지를 참여자들에게 주니, 여행 지도를 다들 쉽게 그리더라.

학생 1: 투명 카드와 야광 펜 외에 필요한 것 더 있어?

학생 3: 아니, 괜찮아.

학생 2: 그런데 별들의 밝기 차이도 카드에 나타내면 좋겠어.

학생 3: 사람들한테 크기가 다른 별 스티커를 직접 붙이게 할까?

학생 2: ㉤ 좋네! 별들의 밝기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어.

학생 3: 생각해 봤는데, 전시 체험 공간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참여 후기를 짧게 남겨 달라고 하는 건 어때?

학생 1: 그래, 좋아. 교지 편집부에서 행사 소감문을 써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관람객들의 참여 후기 중 중요한 내용을 글에 활용할게. 남은 예산으로 별 스티커랑 참여 후기 쓸 메모지를 구입해서 곧 나눠 줄게. 그럼 여기까지 하자.

(나)

우리 천문 동아리는 8월마다 개최되는 지역의 천문 축제에 올해도 참가했다. 천문 축제는 전시 체험 행사와 관측 행사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선 천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조선 천문학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전시와 체험으로 조를 나눠 준비한 덕분에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전시 활동으로는 조선 시대의 혜성 관측을 가상으로 취재한 역사 신문을 준비했다. 영조 시대 천문학자들이 25일간 헬리 혜성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전시하고, 이 관측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추진한다는 소식도 관람객들에게 알려 주었다. 관측 장비가 부족했던 시절에 이토록 상세한 기록을 남긴 것에 놀라워하는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니, 조선 천문학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관측 기록을 전시 주제로 다루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이어진 체험 활동으로, 조선 시대 천문서에 나와 있는 여름철 별자리를 해설하고 관람객들이 카드에 직접 별자리를 그려 보게 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여름철 별자리는 백조자리가 중심을 이루는데, 서양에서 백조의 날개 모양이라 생각한 것을 우리 조상들은 천진(天津), 즉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에 있는 나루터라고 상상했다고 설명했다. 그 양 옆에 견우성과 직녀성이 마주보고 있다고 알려 주자, 아이들은 옛이야기 속 견우, 직녀가 별 이름이라는 것을 신기해했다. 이렇게 서양 별자리와 대조해 설명하니 쉽게 이해된다는 반응이어서 함께 이야기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 후 옛 별자리 그리기와 별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카드가 부족해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있어 죄송했다.

[A] 전시 체험 행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 관측 행사 도우미로 참여했다.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법을 안내하며 관측을 도왔다. 관측에서 까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뿔별의 반짝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조선 천문학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동아리 친구들과 사이가 돈독해져서 행복했다. 내년 축제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

38.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직전 발화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② ㉡: 직전 발화와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을 언급한 뒤, 질문을 통해 대안을 요청하고 있다.
- ③ ㉢: 직전 발화 내용의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뒤,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직전 발화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직전 발화를 재진술하고 제시된 방안의 효과를 덧붙이고 있다.